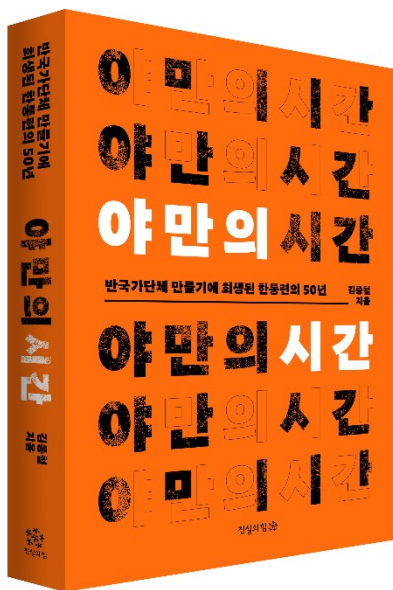


[새책] 야만의 시간

-김대중이 납치된 1973년 결성되어 올해로 50살이 된 한통련-



올해 8월, 한통련(옛 이름 한민통)은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반백년 동안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했으나, 박수와 축하보다는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족쇄에 갇혀있다. 수많은 재일동포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다. 여권도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아 재외국민 투표도 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 회원이라는 이유로 사업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지급되던 보상금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불온시하고, 일본에서는 차별한다.

민주화된 조국은 왜 아직도 이들을 불온과 기피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있나?

저자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조작을 일삼은 정보기관과 검찰, 그리고 공소장을 그대로 베낀 법원, 취재도 없이 받아쓰기식 보도를 한 언론, 반국가단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등을 하나하나 훑아보며 우리를 그 시대로 이끌고 간다. 그리고 “과연 이들만의 문제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한통련 사람들에게 들씌어진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을 벗길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법원도, 진실화해위원회도 본질적 문제인 반국가단체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비껴간 것이다. 저자는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통련의 처지,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라고 진단한다. 이 ‘야만의 시간’을 끊어내는 것은 일본에 사는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의 과제라고 저자가 강조하는 이유이다.

***책 '야만의 시간'에 한통련 간부라는 이유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허경민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허경민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까지 일본에서 다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에 입학했다. 먼저 서울대 의대에 진학한 형(허경조)가 한국 유학을 권했기 때문이다. 허경민이 의대를 다니던 첫 해인 1975년 형은 이른바 '학원침투 복괴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관련자 21명중 12명이 재일교포 유학생이었다. 허경민도 남산 정보부로 연행되어 닷새동안 고문을 받다 풀려났다. 수사관들은 형의 친구가 누구인지, 형이 누구와 만나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형이 '간첩'으로 몰려 구속됐어도 허경민은 별 수가 없었다. 학교는 더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아들들을 걱정한 아버지 뜻에 따라 풀려나자 마자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갔다. 의사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경민은 형의 석방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 민단은 간첩사건으로 구속된 동포를 도와줄 기색이 없었다. 그렇다고 총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교포사회에는 1971년 '서승, 서준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치범 가족 교포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가족교포회'에서 활동하다 한국의 정치범 석방을 위해 일하는 '한국청년동맹(한청)'을 만났다. 기댈 곳은 사정을 이해해 주는 그곳 밖에 없었다. 유학 경험으로 한국말이 유창한 경민에게 한청은 한국말 수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오사카의 여러 지부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다. 봉사를 하며 한청과 어울리는 것이 크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청년을 벗어날 무렵인 1986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던 어른들이 한통련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반독재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신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낮에는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저녁에 한통련 일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것 때문에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겪은 어려움은 많았다. 여권이 발

급되지 않아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를 오랫동안 만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장례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허경민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본 일이 없다. '이러 저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더라...'는 얘기를 친구들과 뒤에서 나누곤 했다. 고국에 방문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선생님이 젊은 허경민에게 표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다. 젊은 허경민은 선생들로부터 격려만 받았다.

90년대가 되면서 한국에서 온 소위 민주인사라는 분들이 한통련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금방 여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기대하는 마음에 연락을 하면 한결같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일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는 재일교포들이라고 알았다가 김대중과 관련있는 반국가단체인 것을 알고 나면 곤란해져서가 아닐까 추측만 할 뿐이었다.

허경민은 오사카에서 '네트리서치'라는 컴퓨터 회사를 운영했다. 1999년부터 한국계 학교인 '교토 국제학원'에 컴퓨터를 납품해왔고 2015년에는 수업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서로 오랜 인연이 있었지만 학교관계자는 갑자기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통일일보'라는 보수적인 동포신문이 국제학원과 거래하고 있는 허경민이 한통련 간부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반국가단체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거래가 일방적으로 끊기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도 허경민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랜 인연이 있는 학교관계자들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직원들을 다른 회사에 소개하고 회사문을 닫았다. 회사 문을 닫은 허경민은 2021년 한통련 오사카지부 부대표직에서 물러나 현재 한국에 머물며 일본어 강사를 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재일교포 가족

허경민의 아버지 허창두는 제주가 고향으로 광주고등보통학교(현 광주일고)로 유학을 하다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도화선인 광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업(1928년)의 주동자가 되어 퇴학을 당했다. 퇴학 후 일본으로 가 오사카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며 생업을 위해 일하면서도 민족교육에 열성이었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게 되자 공립학교에 이른바 '민족교실'인 한글 방과후 수업이 개설되게 애를 썼다. 당시 학생의 40%에 달하는 한국 학생들은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막내 아들 허경민은 우연히 광주일고를 방문했다가 기념관에 아버지 허창두의 이름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어렵듯이 듣기는 했지만 기록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2021년 허창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허경민의 둘째 형 허경조는 오사카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여 석사학위까지 받았으나 일본내 취업이 어려웠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서른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본과 1학년인 1975년 이른바 '학원침투 복괴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가 1979년 1월 최종 무죄선고를 받았다. 일본으로 돌아온 허경조는 이후로 사람을 피하고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이 커서 시작한 컴퓨터 사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없었고 현재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79년 이후 한국에 방문하지 않고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었다.

일상속의 전쟁과 평화



김수지(럿거스 뉴저지주립대학교 교수)

뉴욕에서 기차로 한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은 한국유학생들을 포함해 여러 나라의 국제학생은 물론 미국에서도 총 6만명의 재학생을 망라한 가장 다양한 대학중 하나로 꼽힌다. 아시아 언어 문화과에서 재직하면서 한국 현대사 수업을 하면 분단과 전쟁, 남북사이를 중점으로 다루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재미동포 학생들은 통일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통일과정에서 겪게 될 이슈들은 무엇인지 토론하곤 한다.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미국에서도 그 붐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데 학계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그 어느 언어 수업 보다도 인기가 높다. 요즘 수강생을 모집하기가 힘들다는 인문학임에도 불구하고 문학, 문화, 역사 등을 포함한 소위 한국학 수업도 학생들이 꾸준히 선호한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은 흔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익숙해 하지만 정작 한류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남북사회의 차이를 단순히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또는 인권이 보장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넣기 위해 좀더 친숙한 곳에서 부터 문제제기를 한다. 뉴욕 지하철을 타 봤느냐고 물어본 후 지하철 곳곳에 붙어 있는 포스터에 어떤 광고 또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지 기억해 보라고 한다. 뉴욕 지하철에는 수상한 '물건'을 보면 신고하라는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지적하는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오랜 인종차별 역사 때문일 것이다. 사람을 '인종'이라는 규범으로 식별하여 위계적으로 '질서'를 갖추고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려한 미국 사회의 오랜 역사는 어떤 사람이 '수상'한 것이 객관적인 관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종 사회적 위계 질서와 권력관계로 부터 나타나는 선입견이라는 비판을 가져왔다. 이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한 여러 흑인 인권운동가들의 꾸준한 투쟁으로 이뤄낸 미국 사회운동 중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9.11 테러가 미국 사회를 뒤흔든 후 중동 배경의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미국 주민들로 부터 또는 당국으로 부터 받을 비난과 박해를 두려워해야 했고 실제로 아무 죄 없이 구금되거나 취조를 당한 사례도 많다. 이런 미국 내의 상황도 9.11 이후 태어난 요즘의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역사로 밖에 모르기 때문에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미국의 경험을 상기시킨 다음 서울 지하철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안내 방송 또는 포스터를 소개한다. “간첩, 좌익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나 사이버안보는 미국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지만 ‘간첩’이나 ‘좌익사범’은 한국 현대사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1945년 분단으로 미국과 소련이 남과 북을 점령하고 상반되는 정책과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결국 6.25내전을 치르게 된다. 양쪽은 상대방을 ‘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사상’이라고 간주되는 이념들은 ‘이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그런 지속적인 전쟁 속에서 살게 되었다.

올해는 6.25 휴전협정을 맺은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적을 사람이 아닌 괴물로 상정한 냉전과 맞물린 6.25전쟁은 아직도 정전협정에 명기된 평화협정으로 종결되지 못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언젠가 부터 ‘좌익사범’은 ‘우익사범’에 대한 의문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지 ‘이적사범’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까지도 ‘간첩’과 ‘이적사범’ 등을 신고하라는 안내방송은 일상으로 녹아 있어 그 이면엔 어떤 진실이 있는지, 어떻게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무자비한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되고 사형까지 당했는지 안내방송을 문제 삼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상냥한 목소리 뒤에는 무시못할 국가권력이 있다. ‘간첩’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적사범’을 색출하겠다는 공식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그 상냥한 목소리가 무시무시함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시민의 안식처, 관광객의 휴양지로 평온함을 선사하는 남산은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가 자리했던 곳이다. ‘간첩’과 ‘이적사범’을 상대로 끔찍한 고문이 자행된 곳이고, 그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공원으로 둔갑해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정부는 미군의 주둔과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미군기지를 철거하기는커녕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이북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일상속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진실과 정의를 위한 운동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투쟁도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힘은 국가폭력에 맞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 아무리 칙칙한 어둠속에서도 단 한 가닥의 빛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희망을 보여주는 <진실의 힘>의 꾸준한 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일상속에서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상기시킨다.

[참관기]

특별한 것 없는 특별함, 2023년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

손우정(법무법인경 부설 공익연구소)

세계적인 축제, 알메달렌 주간

알메달렌 공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다양한 항공편이 있지만 직항로가 없어 두바이까지 9시간, 4시간 대기, 다시 7시간 정도를 날아 스톡홀름에 도착하면, 다시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해 40분간 비행기를 타고 고틀란드섬으로 날아가 택시를 타고 비스뷔시로 들어가야 한다.

비스뷔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될 즈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 행사 중 하나인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Almedalen Democracy Week)이 열린다. 알메달렌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고틀란드(Gotland)섬의 비스뷔(Visby)라는 도시에 있는 작은 해안가 공원 이름이다. 1968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었던 올로프 팔메(Sven Olof Joachim Palme)가 총리 지명을 받은 뒤 이곳으로 휴가를 왔다가 우연히 진행한 연설이 연인원 10만 명의 스웨덴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정치 행사가 됐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나 사회적 대타협, 연대 임금 등 다른 곳에서는 민감한 정치 주제를 ‘대화의 힘’으로 풀어나간 스웨덴의 정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알메달렌 주간이다. 올해도 5일 동안 총 2,115개의 세션이 이 작은 공원 인근 곳곳에서 열렸다. 그나마 예전에는 8일 동안 4천여 개의 세션이 열렸다고 하니, 스웨덴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보다 더 말하기를 즐기는 것 같다. 알메달렌 주간에는 영리적인 목적을 띠지 않는 공익적 주제라면, 청중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폭력이나 혐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약간의 신청비와 대관료를 내고 부스를 열어 대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알메달렌 주간이 정치 연설에서 시작된 만큼, 스웨덴 8개 정당의 역할도 유별나다. 8개 정당이 동등한 권한으로 기획회의에 참여해 알메달렌 주간의 큰 방향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알메달렌 공원 구석에 같은 크기와 모양의 천막 부스를 차려 놓고 사람들을 만난다. 각 정당 대표가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중앙 무대 앞에서 진행하는 연설은 알메달렌의 메인 이

벤트다.



<알메달렌 민주주의 주간을 위한 이벤트는 8개 정당의 연설회다 총리가 속한 정당의 순서에는 총리가 직접 연설한다.>

대화로 설득하기, 대화로 영향 미치기, 대화로 대화로 대화로...

새삼 알메달렌에 주목한 것은 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선 없거나 부족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누구는 명절에 정치 이야기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듯이, 우리는 말은 넘쳐도 대화는 부족한 나라다.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마주할 수 있는 태도, 논쟁다운 논쟁, 이해와 합의의 문화는 점점 더 실종되고 있다. 무엇보다 말의 효용성이 없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해도,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외려 말의 용도는 설득과 이해보다 날 선 공격에 더 잘 쓰인다.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는 제도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안에서도 민감한 이슈는 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안전하지만 무익한 대화만 넘쳐난다. 정작 대화가 필요한 주제들이 끼리끼리 문화의 뒷담화로 넘어간 지 오래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대화다운 대화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 개인의 태도 때문만은 아니다. 권력의 대결이, 논리 없는 무력의 자행이,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의 자의적 쓰임이 설득을 위한 대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진솔한 대화나 합리적 토론 따위가 의미 있을 리 없다.

스웨덴의 정치 문화가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알메달렌에서 목격한 2,115개의 세션에서도 특별한 대화의 기술이나 기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각종 토론회에서 하듯이 미리 섭외된 토론자들이 둥그런 원탁

앞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다른 패널의 의견을 들으며, 청중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에 관심 있는 청중이 모이고, 진지한 토론이 계속된다. 대화의 효용성을 체감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성수기에 대표적인 휴양지로 대화하러 온다는 것이 단지 의지와 관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올해 연인원 10만 명의 사람들이 알메달렌을 찾았다. 알메달렌에서 만난 스웨덴 최대 노조 LO의 알메달렌 프로젝트 매니저 마린 헨릭손은 LO가 알메달렌에 참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기업들이 알메달렌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 참여해서 시민들을 만나야 합니다.” LO 다음으로 큰 규모인 스웨덴 전문직 노조 TCO는 좀 더 노골적이다. “쉽게 말하면 로비를 위해서죠. 여기에는 총리에서부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우리의 의제를 알려 놓으면, 나중에 노동자에게 중요한 정책을 통과시킬 때 도움이 돼요.”

두 노조가 알메달렌을 찾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고, 자신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대화의 ‘영향력과 효능감’을 이해하고 있다. 물론 스웨덴도 대화의 위기는 감지되고 있다. TCO가 마련한 토론회의 한 주제는 “우리의 대화가 왜 점점 더 트럼프화되어 가는가?”였다. 그래도, 이것을 한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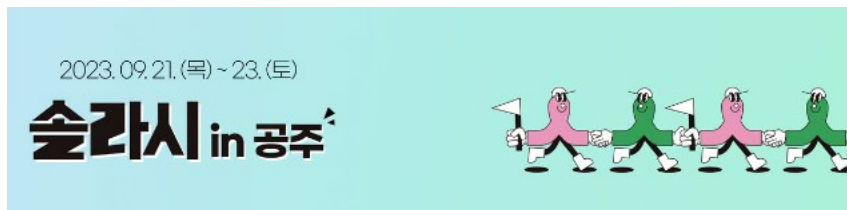
한국의 알메달렌, 가능할까?

‘특별한 것 없는 특별함’으로 꾸며진 5일간의 알메달렌 주간은 정치 ‘축제’라고 하기에는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무수한 대화 자리를 제외하면 특별한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기발한 퍼포먼스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들은 수많은 주제에 진지하게 몰입한다.

한국에서도 알메달렌을 모방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와 단체가 이곳을 찾았고, 돌아가 정책 박람회와 비슷한 행사를 여럿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결과로 보면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스웨덴과 다른 우리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의지를 가진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순간, 기대만큼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순간, 참여자들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간주하고 설계하는 순간,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과 우리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가 사뭇 다르다. 우리가 알메달렌을 모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선진적 대화 문화가 부럽다면, 우리의 정치를, 정치 문화를, 정치의 작동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자! 따져보면 알메달렌 역시, 정치 ‘행사’라기보다 정치 ‘문화’이기 때문이다.



*한국판 알메달렌을 시도하는 ‘술라시 포럼’이 9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충남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온라인 전시]

한중선(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씨의 작업을 소개합니다.



저는 1984년부터 1987년 폐쇄 때까지, 9살이었던 제가 12살이 될 때까지 형제복지원 27소대(아동들만 모아 놓은 소대)에서 겪은 일을 모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겪은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매일매일 그때 들은 욕이 들립니다.

누군가는 죽음으로 지워졌고, 누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통해 지우려 하고, 저 같은 사람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나쁜 민간 복지사업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랑아라는 딱지를 붙여 파출소로 끌려가고, 파출소에서 복지원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다음 본인 의지로는 나올 수 없는 철문을 지나 자물쇠로 잠긴 문 안의 방에 갇히게 됩니다. 공권력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형제복지원은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사진만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말로 하려니 화가 치밀어 올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형은 오로지 저의 기억을 기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다르고, 서로 다른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www.youtube.com/watch?v=54JmcjpGFRo>



